

## 7. 20세기 최고의 충격사건, 소련 붕괴

강사: 박세길\_새사연 이사 | newroad2015@naver.com

여러 모로 한국 사회의 틀과 기초가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이다. 촛불시민혁명으로 출범한 새 정부도 한국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을 공언하고 있는 실정이다. 근대 이후 과거의 전통과 관행으로부터 탈피하여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한 시도는 다양한 형태의 혁명으로 나타났다. 이런 점에서 세계혁명사에 대한 재조명 작업은 인간의 의지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확인해 줌과 동시에 세상을 제대로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을 유념해야 하는지를 깨우쳐 줄 것이다.

결코 상상을 허락하지 않았던 사건이었다. 미국 상층부 소수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상상하려고 하지 않았던 일이었다. 그만큼 소련 붕괴 충격은 컸다. 어느 후진국 독재 정권이 붕괴된 것과는 차원이 완전 달랐다.

소련은 미국과 함께 세계를 양분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소련은 미국에 조금도 뒤지지 않는 초강국이었다. 더불어 사회주의 종주국으로서 반자본주의 사상을 물리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었다. 그런 소련이 붕괴했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한쪽이 무너진 것이나 다름없었다.

소련 붕괴 충격으로 수많은 좌파 운동가들이 전망 없음을 선언하며 백기 들고 투항했다. 적지 않은 좌파 운동가들이 여전히 기존 관념을 고수하고 있지만 설득력과 영향력은 비교할 수 없이 약화되었다. 하지만 포기과 고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찰이다. 소련 붕괴 충격이 컸던 만큼 그것이 던진 메시지 또한 매우 의미심장하고 무거울 수밖에 없다. 소련 붕괴 폐허 속에는 새로운 미래 실마리가 될 보석들이 널려 있다. 우리는 그것들을 찾는 데 조금도 주저해서는 안 된다.

### 중소 분열과 미국의 압박

소련 붕괴는 여러 가지 요인의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그중 하나로서 중소 분열을 빼놓을 수 없다.

<공산당 선언> 마지막 구절은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로 끝맺고 있다. 마르크스

주의 핵심 명제 하나인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천명한 것이다. 마르크스주의는 개별 국가와 민족을 넘어서는 국제연대와 단결 없이 사회주의 운동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보았다. 사회주의에서 국제주의는 필수 요소였다. 그런데 현실 사회주의 안에서 <공산당 선언> 마지막 구절을 조롱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중국 혁명을 다룬 다섯 번째 연재 글에서 중국과 소련의 앞날이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한 적이 있다. 실제로 중국과 소련 사이에 갈등이 깊어지면서 분열 조짐이 갈수록 뚜렷해졌다. 중소 분열 씨앗은 매우 역설적이게도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바로 그 안에 깃들여 있었다.

소련은 사회주의 운동의 국제연대가 실현되자면 개별 국가 차원에서도 그러했듯이 단일한 지도권을 전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소련은 사회주의 종주국이자 2차 세계대전 승리의 주역인 자신들만이 그 지도권을 행사할 자격이 있다고 보았다. 중국은 소련의 지도권을 인정하기 쉽지 않았다. 중국 지도부는 이미 혁명 과정에서 소련의 지도가 자신들 실정에 맞지 않음에 따라 심각한 착오를 경험한 바 있다. 한걸음 더 나아가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식민지 반식민지 나라들 혁명에는 중국 모델이 훨씬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중국 지도부는 내심 자신들이야말로 세계 혁명을 지도할 최적임자라고 생각했다.

스탈린은 중국 지도부 속내를 들여다보면서 깊은 의구심을 품었다. 이 사실은 마오쩌둥의 첫 소련 방문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마오쩌둥이 군사 지원을 얻기 위해 소련 방문 의사를 밝힌 것은 1947년 말이었다. 스탈린은 마오쩌둥을 길들일 목적으로 차일파일 미루었고 결국 방문은 2년 뒤에야 성사될 수 있었다. 마오쩌둥은 1949년 12월 6일 열차를 타고 소련으로 갔으나 정작 조약 체결식을 한 것은 다음 해인 2월 21일이었다. 무려 90일만의 일이었다. 이 기간 동안 마오쩌둥은 극도로 푸대접을 받아야 했다. 대부분 시간을 스탈린과의 면담을 기다리는데 소모해야 했고 다른 나라 수반을 만나는 것도 차단되었다.

소련이 신생 중국에 제공하기로 한 원조도 마오쩌둥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것이었다. 그것마저 막대한 보상을 지불해서 얻은 결과였다. 마오쩌둥은 비공식 합의를 통해 신장과 만주 지역 광물 채굴에 대한 독점권을 소련에게 부여했고, 중국에 파견된 소련 기술자에게 고액 급료를 지불하기로 약속하였다. 아울러 중국 주재 소련인들에게 치외법권을 인정하는 치욕을 감수해야 했다. 소련은 이후 덩샤오핑이 언급했다시피 자신들이 제공한 것보다도 많은 것을 중국에서 가져갈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마오쩌둥을 위시한 중국 혁명 지도자들은 가슴 속에 깊은 응어리를 안게 되었다.

별다른 문제없이 넘어가는 것처럼 보였던 중소 두 나라는 후르시초프 등장과 함께 급속히 악화되기 시작했다. 두 나라는 사사건건 대립했다. 두 나라 모두 자신에게 유리한 세계혁명 이론과 전략을 들이밀면서 설전을 벌였다. 중국은 1966년 8기 중앙위원회 11차 총회에서 소련을 사회제국주의로 규정하였고 소련은 중국을 반레닌주의적 대국주의로 응수하는 등 두 나라의 관계는 극한 상황으로 치달았다. 결국 두 나라 분쟁은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국교 단절로 이어지고 말았다.

미국은 중소분쟁 사태를 날카롭게 주시하고 있었다. 1960년대까지 미국은 평화공존 전략을 바탕으로 소련 발목을 묶어둔 상태에서 중국 봉쇄에 모든 힘을 쏟아 붓고 있었다. 베트남전쟁도 그 일환이었다. 하지만 베트남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중국 봉쇄 전략 역시 실

패로 마감되고 있었다. 바로 그 때 궁지에 빠진 미국을 구출하는 천금과도 같은 소식이 전해진 것이다. 중국과 소련이 완전히 갈라졌다!

희대의 전략가 키신저가 1971년 중국을 비밀리에 방문해 두 나라 관계 개선을 타진했다. 중국은 전통적인 전략대로 먼 적(미국)을 끌어들이어 가까운 적(소련)을 견제하기로 마음 먹었다. 다음 해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 상하이 선언을 통해 중국과 미국의 관계 개선을 선언하였다.

미국과 중국은 함께 손을 잡고 소련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과거 중소 관계가 큰 문제 없을 때 중국은 사회주의 진영을 방어하는 아시아의 거대한 장막이었다. 소련은 그 덕을 톡톡하게 보았다. 하지만 상황이 완전 바뀌고 말았다. 소련은 세계에서 가장 긴 중소 국경선에 막대한 병력을 배치해 방어해야 했다.

이러한 가운데 1980년대 접어들어 미국 레이건 정권은 소련 붕괴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시키기 시작했다. 미국은 소련을 무한군비경쟁 게임에 끌어들이기로 했다. 1983년 1월 16일 미국 UPI 통신은 레이건 정권 군사정책 방향을 정리한 문서인 <1984~88년도 미국 방 지침>을 폭로하였다. 문서의 문서는 1982년 3월에 미국 군사 분야 최고위급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작성한 것으로 30여 명 고급 관료들에게만 배포된 그야말로 1급 극비문서였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대기권 우주 공간 신무기 체계를 개발하여 우주 공간을 새로운 전쟁의 장으로 하는 우월적 지위를 확보한다. 그 목적을 위해서 미국은 우주 무기의 개발을 제한하려는 제안이나 조약은 거부한다.
- 1980년대 중반에 소련은 경제적으로 중대한 곤란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상황을 이용해서 소련의 무기 체계를 일소해 버리도록 군비 증강 계획을 추진한다.
- 무제한 군비경쟁으로 소련의 경제 . 군사적 기반을 약화시켜 사회적 불안을 유도하며, 마침내는 미국에 유리한 조건으로 소련이 정치적으로 굴복해 들어오도록 만든다.

이른바 스타워즈 구상을 중심으로 추진된 무한군비경쟁 게임에 소련은 완벽하게 말려들어 갔다. 소련은 국민총생산 30% 정도를 군비에 쏟아 부으며 연신 과잉 출혈에 시달렸다. 소련의 체력은 갈수록 고갈되었다.

## 누적된 국가사회주의 모순

소련은 사회주의 제도 아래서 급속한 산업화를 통해 미국과 맞설 수 있는 초강대국 반열에 올라설 수 있었다. 소련은 국민 소득이나 공업총생산 증가율에서 1950년대까지는 연 5퍼센트가 넘는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물론 자본주의 나라에서와 같은 파멸적인 공황도 겪지 않았다. 또한 소련 체제는 사회적 경제적 평등을 바탕으로 별로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포괄적인 사회보장제도를 제공했다.

하지만 1970년대에 접어들어 상황이 뚜렷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국내총생산, 공업생산고, 노동생산성, 1인당 국민소득 등 모든 경제 지표에서 소련의 발전 속도는 현저히 둔화

되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1950년대까지 서방 세계에 대해 확실한 우위를 지켰던 연간 경제성장률이 현저히 떨어지기 시작했다. 1950년대에 연간 5.7퍼센트를 기록했던 소련 GNP 증가율은 1960년대에 5.2퍼센트, 1970년대 전반에 3.7퍼센트, 1970년대 후반에는 2.6퍼센트, 1980년대 전반에는 2퍼센트로 계속 떨어졌다.

이 모든 것의 종합적인 결과로서 소련 사회주의는 인민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데서 갈수록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단적으로 인민 삶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 하나인 평균 수명에서 소련이 서방 세계에 뒤지고 있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일까? 바로 소련을 급속한 산업화로 이끌었던 그 시스템 안에서 모순이 누적된 결과였다.

소련 사회는 한 마디로 말해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인민은 전적으로 국가에 의존하는 전형적인 국가사회주의 체제였다. 거의 대부분 기업은 국가 기구 일부였으며, 중앙집권적인 계획과 통제 아래 움직였다. 소련은 국가 중심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철저하게 거대기업 위주의 체제를 유지했다. 거대기업 비중은 2억 8천만 명 인민에게 공급되었던 제품의 77퍼센트가 단 하나밖에 없는 대규모 공장에서 만들어졌을 만큼 대단한 것이었다. 그러한 시스템 덕분에 중앙 결정이 비교적 적은 단계를 거치고도 최종 작업 현장까지 전달될 수 있었다.

문제는 이 같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아래서 소련 인민이 생산 활동과 관련한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여지는 거의 없었다는 데 있었다. 오직 결정은 국가계획위원회 중심 관료 조직 상층부에서 하고, 관료 조직은 이를 체계적으로 아래로 전달하며, 인민은 이를 의 없이 수행하는 것만이 가능했을 뿐이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소련 사회 전체가 위는 결정을 아래로 내리고 아래는 위에서 결정해주시기를 기다리는 데 익숙해져 버렸다. 요컨대 관료주의가 체질이 되고 만 것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인민은 상부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주어진 할당량만을 채우는 수동적 존재로 전락해 갔다. 할당량 기준이 톤이라면 무게가 많이 나가는 물건을 만들면 되었고, 총 가치 기준이 루블이라면 비싼 자재를 이용해 물건을 만들면 되었다. 그러다 보니 공장 노동자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많이 생산할 것이며, 국영식당 아주머니는 어떻게 하면 맛있는 음식을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았다. 소련 사회는 시간이 흐르면서 심각한 무기력증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몇몇 관료가 책상머리에 앉아 계획을 작성하는 것이 습관화되면서 문제는 한층 심각해질 수밖에 없었다. 농업을 예로 들어보자. 소련 당국은 농업생산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다는 목표 아래 비료 공급을 대대적으로 늘리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비료를 담는 자루와 운송 수단, 보관 시설, 살포 기계 등을 동시에 공급하지 못했다. 중앙 계획 입안자는 단지 상부 명령대로 비료 생산 증대에만 관심을 가졌던 것이다. 비료 대부분은 농토에 뿌려지지 않은 채 철도 야적장에 방치되고 말았다.

중앙집권적인 국가계획 자체도 갈수록 제 기능을 하기 어려워졌다. 사회주의 공업화 초기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는 상당한 순기능을 했다. 자원의 선택과 집중을 바탕으로 초고속 성장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었다. 당시는 제품 가지 수가 많지 않고 질 또한 단순했기 때문에 생산 양만 관리해도 별 문제가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 단계로 전환하면서 이야기가 달라졌다. 제품 종류가 한없이 다양해지고 같은 제품이라도 디자인과 기능이 차별화되어 갔다. 중앙집권적 계획경제가 이 모든 것을 반영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국가사회주의 시스템의 비효율성이 누적되어 가면서 소련 사회는 정체 늪에 더욱 더 깊이 빠져들어 갔다.

### 사태를 악화시킨 고르바초프

가까운 장래에 소련 사회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안팎의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1985년 3월 15일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새로운 지도자로 등장했다. 고르바초프는 소련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를 전격적으로 치유하기 위해 빼레스트로이까(개혁)와 글라스노스트(개방)을 내걸었다.

소련은 빼레스트로이까 추진에 적합하도록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는 것을 목표로 대통령과 의원을 자유선거로 선출하기로 했다. 자유선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매체와 문화, 학술 분야에서 광범위한 개방이 추진되었다. 그간 금기시되었던 활동들이 폭발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 저널리스트들은 1920년대 이후 소련에서 실제 생활이 어떤지에 대해 폭로할 수 있었다. 상층 관료들의 도를 넘는 부패, 심각한 환경오염, 건강서비스 악화, 널려있는 빈곤과 미신 등 각종 문제들이 거침없이 제기되었다.

개방 분위기를 타고 그동안 욕구를 억제하는데 익숙해져 있던 인민들은 자신들이 기만당했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결국 인민들 요구가 분출되면서 곳곳에서 허가받지 않은 집회와 시위, 파업투쟁이 빈번해졌다.

고르바초프는 그러한 인민을 불온시 했고 급기야는 인민을 멀리하면서 당내 다수파를 구성하고 있는 보수파에 기대기 시작했다. 보수파가 요구한 허가받지 않은 시위 금지 법령에 서명하기도 했다. 그러자 인민과 급진개혁파들은 고르바초프를 향해 격렬한 공격을 퍼붓기 시작했다. 소련 사회는 보수파와 급진개혁파로 갈라져 대립했다. 고르바초프는 둘 사이를 오락가락하며 갈피를 잡지 못했다. 고르바초프는 모든 상황을 주도하던 위치에서 아무 것도 통제할 수 없는 인물로 전락했다.

소련 사회는 견잡을 수 없는 혼란 속으로 빠져들어 갔다. 빼레스트로이까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 조절과 통제 기능조차 작동을 멈추었다. 1989년부터는 소련 경제 정책 골간인 5개년 계획조차 수립되지 못했다.

결국 소련은 스스로 붕괴하고 말았다. 연방을 구성했던 15개 공화국은 각기 독립했다. 소연방이 해체된 것이다. 외부 침략이나 내부 반란도 없는 상태에서 붕괴를 맞이한 인류사에 보기 드문 장면이었다. 어디에서나 있기 마련인 기득권 사수를 위한 유혈 충돌조차도 찾아볼 수 없었다.

### 마르크스주의 원리에 대한 재점검

소련 붕괴는 불가피하게 사상적 지주 역할을 했던 마르크스주의 원리에 대한 비판적 점검을 불가피하게 했다.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는 폐기되거나 적어도 재해석해야할 대상

이 되었다. 일반적인 국제연대조차도 각 나라 일은 해당 인민이 자주적으로 결정해야 하며 이를 상호 존중해야 하는 것으로 재정립되었다. 자본주의 극복과 관련해서는 근본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졌다. 기본적인 세 가지를 살펴보자.

첫째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하는 표현에서 드러나듯이 마르크스주의는 개인 이익과 공동체 이익은 충분히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 인간은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이타적 존재로 파악한 것이다. 각자 이익 추구가 사회를 이롭게 한다는 애덤 스미스 이론과 대척점을 이루는 지점이었다. 하지만 소련 붕괴 경험은 인간은 적어도 51%는 이기적 존재임을 확인해 주었다. 자신에게 분명한 이익이 없으면 열심히 일하려고 하지 않았다.

둘째 마르크스주의는 자본은 노동력을 착취하는 사악한 존재로서 폐기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실제로 소련 사회에서 자본은 존재 자체를 인정받지 못했다. 하지만 자본의 이윤 추구는 가장 강력한 경제 활동 동기로서 확대재생산 증폭제이자 성장 자극제였다. 자본 폐기는 성장 동력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셋째 마르크스주의는 자본주의 근본모순으로서 사적 소유와 생산의 사회적 성격 사이 모순을 꼽았다. 생산력이 발전함에 따라 분업이 고도화되면서 개별 생산의 사회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높아진다. 이러한 경향은 자본의 사적 소유와 충돌하면서 생산의 무정부성을 키운다. 공황은 그로부터 빚어진 현상이다. 마르크스주의는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려면 생산수단의 사회화 즉 집단 소유로 전환해야 하며, 시장 기능을 국가 계획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분업이 고도화되고 복잡해지면 국가 계획 역시도 그만큼 힘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다. 제품 가지 수가 무한히 다양해지고 기능과 디자인이 차별화되는 다품종 소량시대 다양한 경제 활동 주체를 조절 통합시킬 수 유일한 기제는 시장뿐이다. 이 점은 재론의 여지없는 사실이 되었다.

새로운 미래를 기획하는데 종종 성공한 경험보다 실패한 경험이 더 큰 역할을 할 때가 많다. 그런 점에서 소련 붕괴 역사는 탐구 대상으로서 가치가 높다. 부끄러운 역사라며 마냥 덮어두려는 일부 좌파들 태도는 옳지 않다. 